



"장승하고 말하는 것이 낯겠다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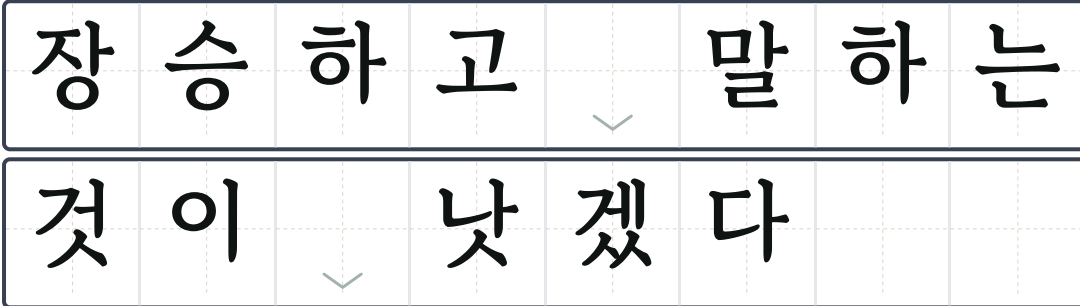
뜻: 상대방이 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, 차라리 아무 말도 못 하는 나무 인형(장승)에게 말하는 게 더 나을 정도로 답답할 때 쓰는 말이에요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불통 · 답답함 · 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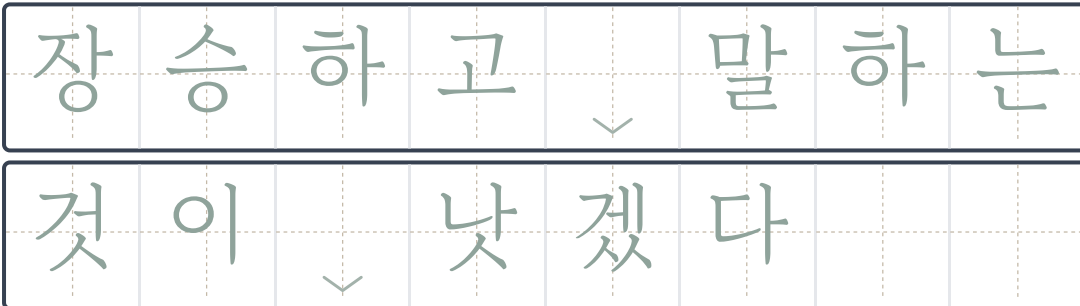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

2단계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장승하] [고] [말하] [는]

웹에서 보기

